

‘담양 펜션 화재 참사’ 4개월... 변죽만 울린 일벌백계 부실관리 지자체 책임 쏙 빠졌다

검경, 공무원 8명 모두 무혐의
업주부부는 11일 1심 선고

민변, 전남도·담양군 상대
관리·감독 책임 물어 손해소

펜션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이 죽거나 다쳤던 담양 황도휴집펜션 화재 사고. 지난해 11월 15일 사고 발생 뒤 3개월이 지났지만 펜션 업주를 제외한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문제는 거러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행정 당국 등이 원칙대로 정기적인 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현장을 꼼꼼히 살펴 무허가 바비큐장을 철거하거나 미흡한 소방시설을 개선토록 했어도 참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거셌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이후 ‘조용하게’ 관련 공무원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10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지만 해당 업주 외에 감독 책임을 제대로 못한 당국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결론나고 있는 모양새다.

◇당국 책임은 없어? = 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담양펜션 화재 사건과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송지됐던 전·현직 담양군 공무원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담양경찰청은 앞서 담양 펜션과 관련, 전·현직 공무원 8명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 중 4명

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긴 바 있다.

경찰은 펜션이 위치한 면사무소 전·현직 건축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 담양군의 불법 건축물 단속 지침을 받고도 시행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을 적용해 기소의 견을 달아 송치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과 달리, 이들 공무원 행위가 근무태만이나 근무 소홀을 넘어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인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공무원의 의식적인 직무 포기로 국가 기능을 저해하거나 국민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행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한 처분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반응이다. 결국, 10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 펜션 화재 사건과 관련, 해당 업주들 외에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문제를 묻기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담양 펜션 화재 사건의 희생자 가족 등 11명을 대리해 관계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담양군, 전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는 점에서 검찰과 다른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무허가 불법으로 설치된 바비큐장을 방치한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화재 참사 ‘그 후’ = 담양 펜션 업주인 최모(56)씨 부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측이 기일 연기를 신청, 선고 여부는 미지수다.

참사 직후 해당 바비큐장의 불법성 및 안전 취약성 여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바비큐장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 점,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된 벽과 역새 지붕을 엮어서 만들어졌음에도,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았고 그나마 있던 소화기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생존 학생 등을 통해 확인됐다.

행정·소방 당국 등이 원칙대로 정기적인 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현장을 꼼꼼히 살펴 무허가 바비큐장을 철거하거나 미흡한 소방시설을 개선토록 했어도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만 했다.

참사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 전국 자치단체는 펜션·민박 등 소규모 숙박 시설에 대한 대대적 점검에 들어가는 한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866개 점검 대상 중 507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받았고 부적합한 37개소에 대한 보수·보강, 정비를 추진했다. 전남도는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시·군·구의 연 1회 이상 안전 점검 의무화를 비롯, 실내 바비큐장에 대한 시설자재·면적 등에 대한 시설 기준 마련,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치매노인 33년만에 광주서 가족 상봉

부인과 자식을 두고 가출한 뒤 33년 만에 가족과 상봉한 80대 치매 노인은 막내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8일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박모(80)씨는 지난 5일 광주시 광산구 동곡파출소에서 33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박씨는 지난 1982년 부인과 5남매를 두고 가출한 뒤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나주시 노안면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동곡파출소로 인계됐다. 경찰은 치매를 앓고 있던 박씨의 지문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 본적지인 강진 성전 면사무소와 마을이장을 통해 친척을 찾아냈지만 가족들의 연락처를 찾는데 실패했다.

경찰은 가족사항을 토대로 수소문하던

끝에 목포에 있는 막내아들(50)을 찾아냈고, 박씨는 33년 만에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심한 치매증상을 보이던 박씨는 본인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광주에 왔는지는 물론이고 가족에 대한 기억조차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날 수십 년 만에 아버지와 상봉한 딸 박모(여·55)씨는 “늘 걱정하던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1법관 1학교 멘토링제’ 을 68개교 참여

광주지법 시행 3년째 내실 다져

광주 법원과 교육청이 추진하는 1법관 1학교 전담 멘토링 제도가 시행 3년째를 맞으면서 내실을 더하고 있다.

광주지법(법원장 김주현)은 10일 광주 지역 68개 중·고등학교와 1법관 1학교 멘토링 체결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1법관 1학교 멘토링’ 제도는 지난 2011년 12월 광주지법과 광주시 교육청 간 교육기부 협약에 따라 2013년 처음 시행된 것으로, 올해는 광주지법 법관 대부분이 참여해 가장 많은 25개 고교·43개 중학교와 연계해 활동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법원의 견학·강연 프

로그램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교육기부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지법에 그동안 교육기부에 대한 감사패도 전달한다.

판사들은 자신이 멘토 역할을 맡은 학교의 담당 교사와 함께 법원 견학, 진로 강의, 모의재판 지도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지역 사회와 어린 세대를 위한 멘토링을 더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세계여성의 날’ 축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지난 7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3·8 세계여성의 날 광주여성대회’를 열어 성 평등 가치를 실현하자는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위험한 눈·발두렁 태우기...광주·전남 곳곳 산불 잇따라

완연한 봄 날씨 속에 농사철을 앞두고 눈·발두렁을 태우기로 인한 화재와 산불이 잇따랐다.

8일 오전 11시20분께 장성군 진원면 고산저수지에서 발생한 불이 바람을 타고 확산돼 인근 불태산까지 번지는 등 산림 약 3ha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이날 헬기 14대와 소방차 10대, 소방대원과 군 병력 등 700여 명을 투입해 화재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후 7시 현재기준 큰 불길은 잡혔으나 경사가 높은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잔불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이 실수로 불을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이날 오후 3시20분께 보성군 득량

면 한 야산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은 전남 주민이 발두렁을 태우다 불씨가 번져 편백나무 100여 그루와 임야 0.03ha가 소실됐던 곳이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2시50분께 진도군 의신면에선 동네 주민이 산 아래 위치한 발두렁을 태우다 불이 번져 산림 0.5ha를 타고 2시간 만에 진화되기도 했다.

같은 날 곡성에서도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들판으로 불길이 번져 철쭉 100여 그루가 불에 탔으며, 광주시 광산구에서도 밭에서 시작된 불이 야산으로 번져 산림 20㎡를 태우고 진화됐다.

이처럼 봄철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지역이 소각산불 최고 우려 지역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전국 시·군

별 소각산불 지수가 화순이 최근 5년간 3.72, 최근 2년간 3.85로 소각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각산불 지수가 최근 5년간 0.9 이상인 동시에 최근 2년간 1.5 이상인 시·군은 전국 23곳으로, 이중 전남지역엔 9곳(화순·나주·영암·진도·고흥·구례·신안·순천·무안)이 포함돼 가장 많았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눈·발두렁에 서식하는 생물 가운데 해충은 11%인 반면 해충의 천적은 89%에 달해 두렁을 태우면 천적이 더 많이 죽게 된다”며 “두렁을 태우고 60일이 지나면 동·식물이 복원되기 시작하는데, 해충보다 천적의 복원이 늦어 두렁 태우기는 방제가 오히려 역효과”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세월호 잊지 말아요...팽목항에 ‘기억의 벽’

1주년 맞는 내달 16일까지 조성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는 4월 16일까지 진도 팽목항 방파제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억의 벽’이 조성된다.

동화 작가들의 주도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시작된 추모 타일 그리기 행사는 서울, 안산, 진도뿐 아니라 대전, 대구, 부산, 전주 등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8일 현재 1700여장의 타일 작품이 완성됐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행사는 참가자들이 11cm×13cm의 타일 위에 희생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서 만들어졌다. 완성된 타일은 팽목항 방파제에 설치되고 있다.

“영원히 사랑해”, “미안해, 잊지 않을게”라며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은 작품은 물론 서투른 솜씨로나마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어린 아이들의 그림도 있었다.

어린이 문학인들, 한국 작가회의,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오는 4월 16일까지 170m 길이의 팽목항 방파제에 6000여장의 타일을 붙여 기억의 벽을 완성할 예정이다. /진도=박현기자 hpark@

손수레 절도범 고유번호로 들통

○고물상에서 훔친 손수레로 고물을 판 50대 남성이 손수레에 적힌 고유번호로 범행이 들통.

○8일 광주동부경찰청에 따르면 김모(59)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5시1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G고물상 입구에서 업주 박모(61)씨의 손수레 1대(시가 30만원 상당)를 가져갔다는 것.

○김씨는 고물상 입구에 설치된 CCTV 분석 등을 통해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 관계자는 “업주 박씨가 손수레에 표시해 놓은 번호 ‘50’을 보고 김씨의 범행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설명.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산수동 남양빌라 “지하”

- 광주 동구 산수동 21-5 남양빌라
- 분양평수 150평(실97평)
- 감정가/시세-1억7천만원정도
- 노래방, 탁구장, 골프연습장, 호프, 독서실 등 적합
- 급매가 - 6200만원 (3월 20일까지)

현재 경매 진행중!

1/3 가격으로 매매합니다.

문의. 010-3605-5000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교육비 / 임차활동비
- 사무실 사용료(1년) 등 2200만원
- ▶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 자본금 - 1억원 이상
- 수익률 - 연 20% 이상

(주) 오천경매

H,P 010-3605-5000